

뉴질랜드 선수와 포옹하는 전민재

등록 2024.09.05 08:06:55



[파리=뉴스시스] 사진공동취재단 = 전민재가 4일(현지시각)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여자 육상 100m T36등급 결선에서 결승선을 7위(14초95)로 통과한 뒤 뉴질랜드 선수와 포옹하고 있다. 2024.09.05.

photo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